중심위 채득이 가능한 tray를 이용해 내원 횟수를 줄인 총의치 수복 증례

THE이해승치과[1],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의학과[2],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3]
이성희[1,2*], 홍성진[3], 노관태[3], 배아란[3], 권긍록[3], 김형섭[3]

[Introduction]
최근 디지털 치의학의 발전으로 내원 횟수와 간격을 줄이면서도 디지털 방식으로 높은 수준의 의치를 제작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인상과 악간관계 채득 과정을 완전히 디지털화 시키기에는 한계도 존재한다. 결국 총의치 수복의 성공은 효율적인 제작방식 뿐만 아니라 정확한 인상 및 악간관계 채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악간관계 채득을 위해 고안된 Splitray®를 이용해 임상적인 효율성과 환자의 내원횟수를 줄이면서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 하고자 한다.

[Treatment Details]
첫번째 증례는 전악 임플란트 고정성 수복이 예정된 환자이지만 안정적이고 심미적인 임시의치의 제작은 이후 고정성 보철물의 성공적인 수복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계가 된다.환자의 불편감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내원 횟수를 줄이면서 CAD software와 3-D printing 방식을 통해 기공시간 또한 단축 시켜 내원 간격도 줄일 수 있었다. CAD design시 진료실에서 얻은 정확한 악간관계와 모델분석을 통한 적절한 치아배열에 대한 정보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면 향 후 1회 내원 의치제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 증례는 잔존 치조골의 심한 흡수를 보이는 환자에서의 의치 제작이었다. 디지털 방식의 의치제작 시에는 기능인상의 변연보다는 얇거나 짧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따라서 본 증례에서는 흡착을 통한 유지를 얻기 위해 기능인상의 과정을 추가하였다. 앞선 증례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된 시적의치는 사용가능한 수준의 의치로 제작되었다. 특히 하악 시적의치상연은 변연봉쇄를 얻기 위한 형태로 수정하여 개인트레이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기능 인상 이후에는 의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SR-Ivocap system을 이용하여 의치를 완성하였다.

[Discussion]
새롭게 고안된 Splitray®를 통해 환자의 정확한 악간관계가 채득과 함께 정중선과 smile line과 같은 안모의 정보를 잘 인기한다면 치아배열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 최근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제작방식의 장점과 함께 사용한다면 Splitray®는 전악 보철물 수복에서 그 활용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